

제를 날마다 물을 것인데, 얼마나 물을지 모른다. 이것은 어찌된 일이고 저것은 어찌된 일인지, 이 우주의 오묘함은 실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대단히 많다.

제자: 사람의 강한 의지와 인내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입니까?

사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놓고 말하든, 우리 사람 신체 표면을 놓고 말하든, 만약 속인사회에서 세파에 많이 시달렸다면, 그는 아마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고, 또 겪은 일이 많았다면 곧 강해지므로 그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수련 중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강해지게 할 수 있다. 경지를 제고하면 인내력도 증가한다.

제자: 우리는 수련과정 중 각종 나쁜 것을 모두 닦아 깨끗이 없애야 합니까?

사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 어떤 수련생은, ‘사부님 우리는 속인사회에서 이다지도 나쁜데, 우리가 부처의 그 경지로 닦아낸다 하여도 우리가 정말 속인 시절의 이 일체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며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속인 중에서 부처는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상, 당신의 사상의 구조, 사유의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 개변해야 한다. 속인 이 층차의 정(情)의 제약과 기타 각종 속인경지 속 물질의 사람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당신은 이 환경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런 상태도 없게 된다. 그러면 수련되어 올라간 후 당신의 사람 표면형식의 이 점은 단지 기억으로 남을 뿐, 그때의 사상은 이미 승화되어 부처의 사상, 신의 사상, 도의 사상 경지로서, 당신의 제일 좋은 부분이다. 사람의 가장 표면의 것, 심지어 이 기억마저도 당신은 움직이고 싶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회상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제자: 새로운 우주가 구성된 후에도 부동(不同)한 층차의 마는 계속 존재합니까?

사부: 이 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만약 오직 긍정적인 것만 있고 부정적인 것이 없다면 어떠한 생명도 모두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하기만 하면 곧바로 되고, 무엇을 갖고자 생각하면 곧바로 가지게 되어 어떤 일을 해도 곤란이 없다면, 당신은 일체를 모두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곤란을 겪고 얻은 그 행복한 느낌이 없을 것이며, 승리 후의 희열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까울 것도 없어, 사람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속인사회에

서의 다툼은 그에게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그가 죽은 뒤 다시 음미해 보면 여전히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한 층차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 점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닦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이 배치한 것이다.

제자: 입정할 때 일부 보고 싶지 않은 사물이 나타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보았으면 본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았다.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그 또한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순리에 따르고 상관하지 말라. 더욱이 속인 이 일보에서 시작할 때에 당신의 천목이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모두 낮은 층차의 것이며, 아주 나쁜 것들이어서 무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법 공부를 많이 하여 빨리 닦으면 이 층차를 아주 빨리 돌파하게 되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아닐 것이다. 다시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볼 것이다.

제자: 가족들이 다른 공법을 연마할 때 저 자신은 단체 연공장에서 유난히 괴롭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광경을 보는데 그것은 예측 작용이 있습니까?

사부: 보았으면 본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설사 곧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보았더라도, 내 생각에 당신은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의 心性(썸썸)을 지키고 수련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수련을 교란하거나 당신 가족이 다른 공법을 연마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교란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느낀 교란은 아마 당신을 고통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정법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당신을 교란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心性(썸썸) 문제이므로 그러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제자: 저는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 지 몇 개월이 되는데,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나는 모모 교(敎)에 귀의했는데 지금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수련은 자신의 일이다.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고 싶으면 당신은 그렇게 수련하라. 당신이 종교에서 수련하고 싶으면 당신은 거기에서 수련하고, 당신이 대법(大法)을 수련하고 싶으면 그러면 당신은 대법(大法)을 수련하라. 이 한 걸음은 반드시 자신이 내디뎌야 한다. 나도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연공 장면은 바로 가장 좋은 흥법이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지해 주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원용하지 않는가? 물론 집이 먼 사람들은 오기가 불편하면 당신은 집에서 연공하라. 장래에 사람이 많아지면 집 근처에서 연공장 하나를 꾸리면 더욱 편리하다.

모든 쪽지를 여러분에게 다 해답해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대수인(大手印)을 치라고 한다. (박수) 이 열렬한 박수를 보면 나에게 수인을 쳐 달라는 생각이다. 그렇지요? 좋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세트의 대수인을 쳐주겠다.

제자: 집에서 연공하는 것과 단체 연공하는 효과는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왕복 한 시간 반을 운전하여 매주 단체연공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부: 집에서 연공하는 것과 밖에서 연공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 연공하면, 당신의 연공을 촉진하는 외부요인이 없어 밖에서 연공할 때만 못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가부좌를 하고 있고 다리가 몹시 아픈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리를 내려놓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신도 다리를 내려놓기가 좀 쑥스럽다. 그러면 당신으로 하여금 연공하는 시간을 연장하게 한다. 매 사람의 일거일동이 모두 다 대법 중의 제자와 같다. 우리 이 환경은 극히 진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인간세상의 환경도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순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집에서 얻은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때 집에서 비교적 마음대로 하게 된다. 좀 많이 연마하거나 좀 적게 연마하거나, 정진하거나 정진하지 않거나, 조금은 마음대로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수련을 잘 장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똑같다. 바로 당신에게 아직 속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잘 장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연공하라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흥법, 흥법 하고 말하며, 더욱 많은

진퇴양난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를 보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 역시 많은 이치를 분명하게 말했다. 삼계 내에는 지금 상관하는 바른 신(正神)이 없고, 사람을 제도하는 바른 신이 없다. 이 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자: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항상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데, 이것을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집착이라고 할 수 없다. 시간이 아주 긴박한데, 낮은 아주 바쁘므로 저녁에 시간을 좀 내어 연공하려는 생각은 아주 좋다고 나는 말한다. 절대로 당신이 연공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신체가 손실을 받거나, 잠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은 연공을 끝낸 후 잠을 자면 더욱 깊게 잘 수 있으며, 정신이 더욱 좋아짐을 느낄 것이다. 틀림없이 이리하다.

제자: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위에는 오로지 예수만을 신(神)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신은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도 이치를

말했다. 사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서도 신은 예수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적어도 예수 이전에 또 여호와 신이 있었다. 이 신구약전서 중에서도 다른 천신(天神)들을 말했다. 고대 그리스 때도 많은 신들이 인류 중에서 법을 전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석가모니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석가모니도 아미타불이 있고 또 원시육불(原始六佛)도 있으며 여래는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등등을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무수한 대보살이 있다. 그러나 어떤 승려들은 부처님은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만 있다고 하는데, 그들 현재의 사상은 어찌 그 정도로 좁아졌는지? 오로지 석가모니만 부처라고 여긴다. 법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들에게 알게 하라. 배우고 싶은가 아닌가는 모두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만약 그들이 기필코 그들 자신의 인식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들 마음대로 하게 두라. 우리는 선을 권하기만 할 뿐, 절대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한다.

제자: 사람의 공은 다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사람이 빌어서 나온 가짜 부처가 사람의 공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흠이다.

제자: 제5조 공법은 매우 긴 시간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파악합니까?

사부: 절대적인 제한은 없다. 자신의 능력에 근거하여 하는데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이 5조 공법을 균형 있게 다하려면 시간은 좀 길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이 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좀 휴식하고 다시 이어서 해도 괜찮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높게 요구해야 하며 되도록 견지해야 한다.

제자: 수련시간이 아주 긴박한데 어떻게 하면 연공과 법 공부 시간을 잘 안배할 수 있습니까?

사부: 어떠한 비례는 없다. 법 공부 시간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은, 나는 단지 당신들에게 정진하라는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당신에게 말해 준 적이 없으니, 배우고 수련만 하라. 연공과 법 공부 시간의 비례는, 바로 당신이 법을 많이 배워야 하고 연공은 아침저녁으로 연마하면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정공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다.

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러면 하라. 이것은 수련이 아니다. 향을 피우고 그 고금(古琴)을 치는 것은 중국 고대에 이미 금기서화(琴棋書畫)와 같은 그런 아담한 흥취이다. 이것을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천히 당신의 수련층차의 제고에 따라 당신은 일체 속인의 마음이 다 비교적 담담해지며 갈수록 담담해진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일도 강요하지 말라.

제자: 어떤 사람은 토론을 적게 하고 법을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전법륜』 등을 연속적으로 낭독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이것을 단편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 사실 바로 법을 많이 읽고 많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다가 힘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멈추고 조금 휴식하고 자신의 성과를 말하는,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법이 좋고 안 좋고를 담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더욱 많은 시간을 당신 자신을 말하는데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법을 많이 보아야 하고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마치 용기와 같아서 무엇을 담으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담아둔 법은 바로 법에 동화된 것이며, 당신이 흡을 담으면 바로

사부: 그것은 사람의 공을 가져갈 수 없다. 그것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의 기(氣)이다. 바로 이런 뜻이다. 그것은 어떤 에너지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여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속인이 빌어낸 것이라 사상경지가 바로 속인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은 왜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가? 바로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 수련해 원만을 이룬 후 다른 세계로 가는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法輪(파륜)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수련만 하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도 알 수 없다. 당신은 정진만 하라. 당신이 생각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원만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되도록 빨리 수련하여 되돌아가는 그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것은 모두 생각하지 말라. 나 이 사부는 반드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박수) 새 우주든 미래의 일체든, 누구를 위해 개창하는가? 중생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모님들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한다. 특히 장래에 그를 더욱 좋게 하려고 한다. 다 이러한 마음이다. (박수)

제자: 원만에 이르러서는 다만 찰나 사이에 완성되는데, 그렇다면 사부님의 지령(指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곧 원만을 이루려 할 때 바로 당신과 접촉하기 시작하며 많은 일들을 직접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자칭 원만을 한 것과는 다르다. 무릇 자칭 원만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원만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제자: 서양 사람에게 흥법할 때 종교문제를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부: 그에게 책을 보여 주라. 그에게 책을 보여주기만 하라. 종교문제는 내가 책 속에서 명확하게 썼다. 그가 물어본다면 우리도 책에 따라 말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제자: 저는 가부좌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저의 업력이 커서 마땅히 응보를 받고 응보를 당해야 하는 일인지 여쭙습니다.

사부: 아니다. 가부좌할 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 우리 많은 사람들 곧 체조하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

밖에 있을 수 없는가? (열렬한 박수)

제자: 어느 날 아침 3시가 좀 넘어서 제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아주 먼 상공에서 저를 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몇 십 미터 떨어졌는데 긴장하자 없어졌습니다.

사부: 이 우주를 다른 공간에서 보면, 모든 물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존재 방식도 우리처럼 이렇지 않다. 그것의 시간장의 구성과 우리 이 공간의 시간도 절대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공간의 일체 개념으로 해석해도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것을 본 것은 좋은 일이다.

제자: 어떤 수련생들은 스스로 혼자서 『전법륜』 2권을 복사하거나 인쇄해서 연공장에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부: 『제2권』은 나중에 우리가 줄곧 출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2권』 속에 불교에 대해 그것의 아픈 곳을 찢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튼 다시 출판하지 않았다. 우리 자신들이 한 권을 얻어서 혼자만 보면 괜찮다. 당신이 몇 권을 인쇄하여 도처에 전하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제자: 이전에 고쟁(古箏)을 연주할 때면 향을 피웠습니

두 전생에 의해 다음 생의 부부인연이 조성되는데, 다수가 이렇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자: 대법을 수련하면서 관음보살을 공양할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책을 보라. 이 문제는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많은 수련생들이 나에게 묻는다. 사부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사부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지역에 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법에 대해 일정한 인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숙해진 다음 내가 가면 당신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 (박수) 만약 내가 갔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 法輪功(파룬궁)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헛되게 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바로 방금 전의 이 문제는, 우리는 시간이 매우 긴박한데 당신은 책을 보지 않고 나한테 관음보살을 공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 나는 이 법을 당신에게 헛되게 말한 것이다. 이런 이치가 아닌가?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나는 이 법 중에 있지 않다.”라는 한마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그것이 어떤 잘 이해 못할 것이 있는가? 나는 우주

람, 혹은 원래부터 다리를 틀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리를 틀려면 금방 틀어진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데, 그때 당신들은 수련하지 않았다. 수련을 시작한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은 아프기 시작한다. 당신이 다리를 틀 수 있다 하여 절대 연공으로 소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이 당신들의 제고를 도와야 한다.

제자: 제가 침대에 누워서 손을 아랫배 부위에 놓으면, 자신이 마치 물결처럼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이러면 사법을 연마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됩니다.

사부: 당신은 당신의 신체가 미시적인 데에서부터 표면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느낀 것이다. 바로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으로, 우리는 당신을 미시적인 데에서부터 표면에 이르기까지 줄곧 개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주 조금이다. 아주 많고 많은 것은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느낌은 대단히 고통스럽다.

제자: 청소년 시기에 마난이 비교적 많았는데, 법을 얻은 후 이 마난들이 수련에 도움이 됩니까?

사부: 어떤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때 한 사람

마다 모두 법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람이 법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졌다면 그의 일생이나 심지어 세세생생 이 일을 위해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날 법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생세세 모두 다 이 법을 얻기 위해 고생을 했는데, 진정으로 법을 얻을 시기가 되어서는 그는 오히려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애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인데……. 그럼 당신이 말해 보라. 이것이 애석하지 않은가?

제자: 법을 방금 배웠을 때에는 꿈속에서 위험을 만나면 늘 사부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래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들과 오고가며 싸우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사부: 이런 현상은 비교적 적으며 매우 보기 드물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도 있다. 한 기간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좋아진다. 당신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면 괜찮아진다. 아무튼 한 기간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일단 일이 있거나 하면 사부를 부르는 것, 그것 또한 집착이 아닌가? 그리고 꿈속의 일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상태 중의 체현이다. 과거에 도가의 수련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련인으로서 당신은 다리를 틀어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농담이 아니다. 수련인이 수련을 관찮게 했음에도 다리를 틀지 못한다면 위의 보살도 입을 가리고 당신을 보고 웃는데, 정말이다. 그러나 조금해 하지 말라. 천천히 언젠가 다리를 틀 수 있다. 나는 종래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 적이 없다.

제자: 무엇 때문에 연공하거나 법 공부할 때 허리 부위가 뜨거워집니까?

사부: 사람이 수련 중에서 각종 상태는 그야말로 천만 종류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상태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이 매 한 가지 상태마다 나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은 수련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당신은 여전히 수련하는 사람인가? 이런 일들은 신경 쓰지 말라. 자연스러움을 따르라. 수련하는 사람은 추운 것도 두렵지 않고 더운 것도 두렵지 않으며 바람이 불어도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

제자: 부부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하늘에서 정한 것입니까?

사부: 이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업력운보가 있어서 업력이 축성한 것이다. 부부간은 절대다수가 모

사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되도록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되도록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튼 이런 일들이므로 당신은 어떻게 최대한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데 부합할 수 있고, 또 연공인의 표준에 부합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이렇게 하라.

제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인간세상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각종 복잡한 환경이 조성한 그 문제 또한 극히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수련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로 살인 방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당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배치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공인으로서 또한 어렵지 않다. 사실 우리 많은 일들은 말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제자: 수련을 일 년 했는데 아직도 결가부좌를 하지 못합니다. 가부좌를 틀지 못할수록 조금해집니다.

사부: 괜찮다. 정말로 다리를 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리를 틀지 못한다고 하여 당신에게 원만을 이루지 못하게

방법 중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특별히 내외점수의 것에, 즉 내공도 수련하고 또 무술도 연마하는 바로 그런 공법에 비교적 많다.

제자: 우울증과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만약 진정으로 수련을 한다면 원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부: 만약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원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공공장소에서 연공하지 말라. 당신을 위해서이고 법을 위해서이다. 만약 당신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법에 손실을 조성한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기는 집에서 연마하라. 당신이 수련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서 연공하든 나는 다 당신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정신이 맑고 관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자: 전반생을 되돌아보니 후회와 자책이 느껴집니다.法輪大法(파룬파파) 제자로서 마땅히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하라. 나는 당신이 수련하는 이 마음만 본다. 다른 문제는

사부가 당신을 위해서 한다. 지나간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또한 장애와 집착이 형성된다. 더는 신경 쓰지 말라. 다시 면모를 바꾸어 환골탈태하면, 당신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박수)

제자: 저는 『전법륜』 책을 볼 때, 때로는 얼굴은 단지 껍질일 뿐이라고 느껴지며, 얼굴 안이 책을 보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사부: 바로 당신의 元神(웬선)과 당신 신체의 미시적인 그 일부분 그쪽이 비교적 강해서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제자: 心性(썬썬)과 경지(境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수련되면 그것이 바로 당신 心性(썬썬)이 처한 표준이며 역시 당신의 경지이다. 이 경지 속에서 발산한 어떠한 사상이나 염두는 모두 다 이 한층 心性(썬썬)표준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우리는 또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미시적인 데에서부터 표면에까지 이렇게 개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표면상 사람의 여기가 여전히 사람의 형상일 때, 마음은 아직 속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최후 원만에 이를

사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속인사회를 떠나기 전에, 당신이 원만을 이루기 전에, 당신에게는 줄곧 정(情)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속인사회의 수련을 보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정이 있으므로 해서 이 마음 역시 정에 끌려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그것을 억제하고, 되도록 연공인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속인처럼 그렇게 멋대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속인과 같지 않은 점이다. 물론 당신이 친구를 찾으려 하거나, 결혼을 하려하는 데에는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데, 바로 이런 관계이다. 우리는, 최대한도로 속인사회의 상태에 부합하여 수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친구를 찾고 싶지 않고 나는 이 한평생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의 문제이다.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는바, 일체는 바로 모두 이러하다. 그러나 제자로서 반드시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제자: 친구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물어볼 때 제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제자: 『전법륜』을 통독하는 일을 매주 세 번 편성하면, 서로 토론할 시간이 없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사부: 괜찮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 무엇을 토론하려는가? 통독하라. 시간을 다 법 공부에 사용하라. (박수) 물론 당신들이 시간을 내서 체득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일 연공이 끝난 이후 서로 조금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

제자: 문화정도의 고저에 따라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부: 조금 차이가 있다. 글을 모르면 책을 볼 수 없다. 당신이 글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책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대인은 모두 지금의 이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나도 현대과학·현대문화에 결합하여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용어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그래서 배우려면 조금 힘이 든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아무 것도 뒤쳐지지 않는다.

제자: 애정이 줄곧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친구와 다툼 때면, 저는 즉시 그와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자신이 도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와 화해한다면 이것은 애정에 대한 집착입니까?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체에 개변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 중에서 반드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心性(썌썌) 상에서 속인을 초월해야 한다.

제자: 만약 매일 아침에 포륜(抱輪)을 두 시간 반 하고, 저녁에 가부좌를 두 시간 반 하면, 매일 연공하는 시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부: 만약 당신이 시간이 있어 많이 연공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연공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책보는 시간을 빼앗는다면,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책을 보고 법을 공부하는 이것은 제1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신을 본질상에서부터 진정하게 개변되도록 보장할 수 있고, 승화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공은 원만의 보조수단이다. 당신은 연공을 첫 번째로 놓고, 책보는 것을 두 번째로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은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당신이 어떻게 연공을 하겠는가? 설령 자동적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위로 솟구칠지라도 올라가지 못한다. 당신의 心性(썌썌) 표준이 거기에 도달하고, 법 공부와 책을 보는 것을 통해 당신이 법리상으로 명백해지면, 공은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공시간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나 연공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께서 어떤 공법은 副元神(푸웬선)이 나가서 연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副元神(푸웬선)은 살해당한 후 또 환생했습니다. 그 신체는 主元神(주웬선)이 수련합니까, 아니면 副元神(푸웬선)이 수련합니까?

사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항상 이런 한마디 말을 한다. 인류 이 한층은 당신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에 얼마의 공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아주 어렵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다른 또 한 공간의 시간장(時間場)에서 이 일체를 완성한다. 다른 공간의 시간장 속에도 또 다른 공간의 시간장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일체를 완성한다. 물론 다 副元神(푸웬선)이다!

제자: 우리 번역 팀은 사부님의 경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일부 서양 수련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부: 번역한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공포하거나, 혹은 책으로 인쇄하여 수련생에게 전하여 보여주려고 할 때 모두 다 연구회에서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전체 대법의 일에 영향을 줄

게 그 나한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심리나, 기뻐하는 심리로선 원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당신이 수련 성취하여 더욱 높은 경지의 원만을 이루려면 요구도 더욱 높아진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 당신이 만약 그 순간에 정말로 이런 잡념이 생긴다면 당신은 정말로 원만을 이룰 수 없게 되는데, 바로 당신을 잡아당긴다.

제자: 사부님의 설법은 갈수록 명백해져서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수련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한 말을,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이 듣는다고만 보지 말라, 매 사람마다 매 사람의 부동한 층차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다. 절대로 같지 않다. (박수)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것은 여전히 그 말이다. 비록 그렇게 높은 이치로 말한다 해도 단지 그의 표면만을 개괄적으로 말할 뿐, 실질적인 것은 당신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다. 알게 되면 수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말한 것은 여전히 한 가지 이치일 뿐, 진상은 당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미혹이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여전히 함께 존재한다.

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속인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게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가장 편리한 한 법문을 열었다. 계란을 먹고 싶을 때 당신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출가승은 이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제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빨리 아주 깊이 숨어있는 집착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당신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당신이 그때에 가서 제거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일깨워 줄 것이며, 모든 마음을 다 당신을 위해 폭로해 줄 것이다. 내가 당신을 일깨워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일깨워 주게 한다. 모순이 발생할 때 당신의 그 일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신이 또 밖으로 찾을까 봐 걱정이고, 또 그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반드시 당신에게 일깨워 줄 것이므로 이 점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제자: 제자들은 언제든지 사부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원만 장거(壯舉)의 그 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부: 마땅히 원만을 해야 할 제자는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수련만 하고 무엇이든 다 관여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중대하므로 반드시 그들에게 보라고 해야 한다. 특별히 설법 녹음은 아주 많은 것이 내가 말한 후 더는 보편적인 효과가 없다. 발표하려면 반드시 내가 다시 정리해야 하고, 그것을 책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 고쳐야 하며, 수련생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고 제고를 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점은 이미 매우 명확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그 일이 전체 대법에 관계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숙하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께서 “법 중에 용해되자”에서, 더는 많은 시간을 내서 토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서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사부: 단체로 책을 보고 법 공부 하는 것과 혼자서 책을 보고 법 공부 하는 것을 결합해야 하는데, 모두 다 필요한 것이다. 한쪽의 극단에서 또 한쪽의 극단으로 가지 말라.

제자: 부동(不同)한 경문을 외울 때, 부동한 난이도(難易成度)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까?

사부: 내가 쓴 그것은 어떤 것은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데 이 점은 틀림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쓰는가? 역시 목적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라.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이해해도, 이해가 어긋나지 않으며 인식하는 정도가 부동(不同)할 뿐이다.

제자: 경문을 외우기 위해 저는 외워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외워 쓴 경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부: 이런 일을 할 때 수련인의 심태가 있어야 하며, 사부와 법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워 버려라. 속인의 이 불(火)은 영원히 신(神)을 태우지 못하므로 필요 없으면 태워 버리면 끝이다. 이 역사시기는 하나의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대법의 책은 절대로 태울 수 없다.

제자: 노 제자는 늘 사부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집착입니까? 사부님을 만나면 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하는데, 이것도 집착입니까?

사부: 마음속에 나를 만나려고만 하는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대다수는 당신이 대법을 수련했고 사부가 전해준 이 법이 당신을 구도했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조금 타파해 주면, 그렇게 아주 높은 층차에서 온 사람, 그에게 미혹을 조금만이라도 타파해 주면, 그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어느 층차에서 왔든 이렇게 해야 한다. 진상이 일단 나타나면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아주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련방식도 엄격해지고, 제고도 이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제자: 계란을 깨는 것을 살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라. 사실 나는 방금 전에 이 이치를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은 사람의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데, 집안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당신은 수련을 하지만 집안사람들은 수련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하여 수련할 수 있으므로, 시야를 큰 곳에 두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라. 이런 일들은 모두 처리하기가 쉽다. 당신이 채식한다 하여 성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스운 소리다.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고기에 집착하지 않고, 육식에 집착하지 않는, 바로 이 한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가. 단지 한 가지 마음을 제거했다 하여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는

이가 있었다. 낮에는 여기에서 밥을 먹고 출가하지만, 재미 없다고 느껴지면, 저녁에 가시를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부처가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갈수록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비로소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참으로 수련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구별이 없다.

제자: “상사는 깨달음에 의거하여 원만을 이룬다.”와 “진상이 일단 나타난다.”의 구체적인 내포를 삼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상사는 깨달음에 의거하여 원만을 이룬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 주겠다. 이 자리의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깨달음에 의거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진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어떠한 마음이라도 생길까 봐 염려되어 이렇게 했다.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수련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부단히 정진하고 있는 사람, 나는 그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한다. 장래에 수련해 올라간다면 누구든 당신에게 탄복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깨달음에 의거하여 원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신통이 크게 나타나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다면 수련하기에 늦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 열렸다면 당신이 수련한 것은 수련으로 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각도에서 나를 만나려 하는 것이다. 나를 만난 후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개변과 당신 자신의 몸에서 발생한 변화 때문에 조성된 것이다. 당신은 표면상에서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잘 수련된 그 부분, 혹은 당신의 元神(웬선), 혹은 당신의 미혹되지 않은 그 일부분은 다 볼 수 있다. 일단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다 정신이 깨어난다. 그가 정신을 조금 차리기만 하면 당신 사람 이쪽은 아주 약하게 변한다. 그러면 당신 이쪽의 울음을 표면에서는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그쪽 일면은 내가 당신에게 해준 일체는 어떠한 말이나 방법으로도 내게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인데, (박수) 마음속에 감사드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제자: 결가부좌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신체의 어떤 부위가 수시로 강하게 떨려서 정공할 때 입정할 수가 없는데요?

사부: 결가부좌는 아무래도 고통 과정이 있다. 특히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종래로 다리를 틀어본 적이 없고, 더욱이 신체 표면의 물질 구조가 적응하지 못하는데다가 또 업력이 아래로 소멸되기 때문인데, 당신으로 하여금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 당신이 나는 반시간 동안 다리를 틀 수 있다고 한

다면, 반시간을 초과한 후에는 당신은 또 대단히 아플 것인데, 이는 틀림없다. 고통에 이어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과거의 수련하는 화상(和尚), 그를 당신은 가부좌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 그도 心性(썬씽)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그가 제고한 心性(썬씽)이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오게 되며 수련도 천천히 된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면 업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리를 내려놓게 한다. 그러나 의지가 견정해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의 心性(썬씽)은 제고 되는데, 이 역시 일종의 마난 중 제고이다. 어떤 때에는 극심한 고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할 때에는 아주 격렬하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이미 최후의 질주단계에 들어섰다고 여기며 법을 다그쳐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부: 나는 최후의 질주단계라고 말하지 않았다. 법을 다그쳐 배워야 한다고 해서 사직(辭職)하여 집에 있다면, 그것은 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누가 이렇게 선전하고 누가 이렇게 한다면 바로 법에 대해, 그 자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무슨 사직이며, 어떤 일을 다 하지 말라고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쳤는가? 당신이 법을

들었다면 들은 것이고 보았다면 본 것이니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당신은 대법으로 수련해 나아가라. 이치는 이미 다 글에 썼는데 당신은 또 무슨 정보를 상관하는가. 가짜 정보에 당신이 한번 속으면 당신은 바로 떨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제자: 고층공간에서 생긴 생명이 떨어진 후 또 수련해서 돌아간다면, 원래와 어떠한 구별이 있습니까?

사부: 고층생명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떨어지는, 어찌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는가? 다만 이런 현상이 존재할 뿐이다. 수련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당신이 글자 몇 개를 쓴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과는 다르다. 당신은 당신들이 법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는가? 당신들은 지구상으로 환생해 와야 하고, 또 당신들은 그 시기에 출생해야 하며, 또 당신을 제도하는 사람의 출생에 맞춰야 하고, 당신은 또 사람을 제도하는 대각자(大覺者)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이 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다. 정말 법을 얻었다 해도 또 수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석가모니의 제자들 중에도 석가모니가 말한 법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부좌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결과부좌를 할 수 없습니다.

사부: 사실 당신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는 법 공부에 정진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방면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거나,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만약 당신이 오늘 일을 아주 잘 하고 법에 부합한다면, 당신은 원래 10분밖에 할 수 없던 가부좌를 틀림없이 20분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많은 수련생들이 다 이러한 체득이 있다. 사정은 또 절대적이지 않다. 다만 최근 한 시기 당신이 큰 업을 소업해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제자: 일부 정보를 받았는데, 각자(覺者)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유에서 온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어떤 정보를 받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이 중요시하면 바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방법을 바꿔 당신을 교란할 것이며 방법을 바꿔 당신에게 정보를 주어 당신을 교란한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나 잠가두지 않았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정보든지 신경 쓰지 말라.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람도 법을 원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사람이 어떻게 법을 원용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법은 당신을 제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가서 법을 원용하는가? 사람이 속인사회 이 한 층차에서, 모두 아주 잘못하고, 속인사회 중에서 하는 것이 속인과 같다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보라, 이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두 다 매우 잘하여, 연공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는 제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들이 보면, 어, 이 사람들은 다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좋다. 어디에 두어도 마음이 놓이며 어디에서나 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은法輪功(파룬궁)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고, 이 대법은 정말로 좋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속인의 이 한 형식 속에서 대법을 원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치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표현이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을 원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법에 먹칠하고 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당신을 제도할 수 있는데 당신은 또 법을 파괴하다니, 어떻게 이 관계를 바르게 놓는가? 어떻게 당신을 헤아려야 하는가? 수련은 그야말로 엄

숙한 것이다. 온몸에 업력이 가득한 사람이 원만에 이르도록 수련하려면 당신이 엄숙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숙할 수 있는가?

제자: 지식인이 『전법륜』을 통독할 때 적응하지 못하는 데, 늘 대학 교과서 문장의 풍격과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개인의 연분이나 업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이것이 바로 이런 지식인들이 법을 얻는 데에 장애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생성한 관념이 그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문학이 형성한 관념, 그것을 나는 신 팔고문(新八股)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휘에 정의를 내려 거기에 고정하자 더욱 깊은 내포는 없어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백화(白話)로서 인간의 천박한 언어이다. 게다가 정의를 내리고 나서부터는 단지 아주 간단한 것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어떤 사람은 사부님의 책은 현대어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현대어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법은 부동한

층차의 생명에게 생존 조건과 환경을 개창(開創)해 주었는데, 인간의 언어와 문자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인류 문화 역시 법이 인간에게 개창해 준 것이다. 그럼 이왕 이러하다면, 이 우주 대법을 인간의 언어 표준에 국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단지 인간의 언어문자와 어법을 이용하여 법을 표현할 뿐이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편리한 바에 따르고, 내가 더욱 깊은 내포를 어떻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그렇게 그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나는 현대어법을 완전히 벗어나 전혀 그것의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 나의 설법을 포함하여, 그것의 규범언어에 따라 하지 않았다. 이래야만이 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다. 법(法)은, 이렇게 큰 우주 법은, 인간의 어법으로 국한할 수 없다. 나는 단지 인간의 언어를 이용했을 뿐이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설해도 다 되며, 다만 어떻게 법을 표현해 낼 수 있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배설했다. 법은 또한 미래 인류에게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줄 것인데, 일체는 모두 다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틀림없이 익숙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 다리에 원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미 걸가